

환경친화적 워터프론트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waterfront familiarity in environmental design

해안관광지를 중심으로

Focused on the seaside tourist resort

김영숙

동서대학교 디자인전문대학원

환경디자인전공

지도교수 : 박부미

Kim Young-sook

Dept.of Environmental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DongSeo Univ.

An academic adviser Park Boo-mi

● **Keywords:** environmental familiarity, waterfront design

I. 서론

인간은 태초부터 항상 물과 결부되어 살아왔으며, 또한 물의 어메니티적 요소는 인간에게 정신적 풍요로움을 제공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과학과 경제가 발달되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자 자연으로의 회귀, 마음의 풍요와 안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부산도 이러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세계적인 친수성 관광지로써의 워터프론트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시사이드 모모찌와 우리 나라 해운대를 환경친화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라는 관점에서 자연환경, 인공환경, 인문환경, 행정적 측면의 4가지 측면을 비교 분석하여 가장 이상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워터프론트 디자인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결과를 논의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II. 본론

1. 이론적 배경

1-1. 환경친화적 디자인의 개념

환경친화적 디자인이란 용어는 과학과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점점 피폐되어져만 가는 환경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요구에 의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디자인이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보존, 개발하는데 주안점이 있으며, 자연 생태계와 인간행태를 고려한 디자인이다.

즉 생태계적 측면에서 개발한 보존의 조화로운 공존방법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자인 패러다임이다.

1-2. 워터프론트 개념

워터프론트는 수변공간, 수계면, 연안역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처음에는 도시의 바다와 하천 등에 인접한 토지의 장소적 의미에 국한하여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바다나 하천 등의 양호한 환경에 의해 도시생활자에게 혜택을 주는 공간적 의미로 확대 사용되고 있다. 결국 워터프론트는 단순히 물가의 토지를 지적할 뿐 아니라 수변으로의 새로운 도시환경으로 갖추어져 온 것이다. 따라서 워터프론트의 공간적 범위는 수계 선을 끼고 있는 육역과 수역을 포함하는 장이라 개념지을 수 있다.

1-3. 워터프론트 개발 유형

여가 대응 지역, 진흥을 위한 개발, 어메니티를 중시한 환경정비, 도시문제를 해소하는 개발, 항만지구의 새로운 토지 이용 등의 개발 유형이 있다.

2. 국내, 외 워터프론트 개발 사례 분석

2-1. 일본 - 후쿠오카 시사이드 모모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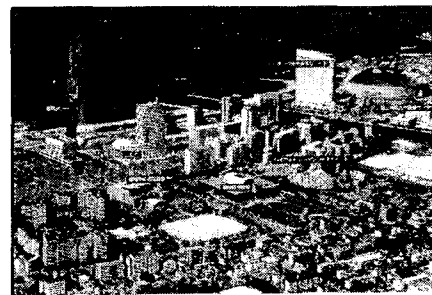
1) 자연환경적 측면

시사이드 모모찌 해변은 쇼와40년대부터 급격히 오염이 진행되어 모래언덕이 침식되고 해수욕장은 쇠퇴해가고 있었다. 이에 새로운 해변도시 전개용지를 매립에 의해 확보하게 되었다. 이처럼 시사이드 모모찌는 케야노몬 다이몬과 같은 현식암해식동굴외의 자연환경적 절경이나 비경은 열악하지만 자연환경의 열악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보존적인 정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깨끗하며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공해변등을 매립에 의해 생성하되 해안선은 파도에 의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게 해서 인공 환경의 자연 환경화로 전환시켰다. 그러므로 시사이드 모모찌의 자연환경적 측면은 주어진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깨끗한 거리, 깨끗한 해변등 도시 전체의 쾌적성과 자연 환경 유지 보존적이다.

2) 인공환경적 측면

워터프론트 개발 유형상 도시의 쾌적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용부지 부족과 여가 공간 부족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도시문제를 해소하는 개발유형이다. 따라서 도시 자체를 스포츠 레크레이션 지역과 정보문화 지역, 해변 레크레이션 지역의 세 분야로 나누어 조성했다. 스포츠레크레이션 지역은 일본 최초의 지붕개발식 돔을 만들어 많은 인원수용과 각종 레크레이션 장을 제공해주며 테마돔을 만들어 미래형 복합 시설을 계획해 자연 환경의 열악함을 극복했다. 그리고 정보 문화지역은 박물관과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국제 교류시설등을 배치해 자연환경외의 인공 환경의 조성으로 시사이드 모모찌의 집중화를 유발시켰다. 박물관 조성 시에도 오픈 지역을 설계하며 정원을 조성했으며 주변환경과 외부 공간과 대응하는 유연한 형태를 추구했다. 또한 녹지 도로 조성 등과 같이 인공건물 설립 시에도 자연을 파괴하거나 균형을 깨지 않고 보존과 자연환경과 가장 가까운 설계를 추진했다. 해변 레크레이션 지역은 하카타 항을 위주로 한 인공 해변과 해양 레저의 거점 시설을 도입해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제공했다. 모래 유출을 막기 위해 해안 독과 수중 방파제를 만들었으며 해변의 경관 형성과 환경보전 방풍, 방사기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 녹지를 확보하고 백사 청송이라는 원래의 풍경 재현을 하여 환경친화적인 면을 극대화시켰다.

<그림1>사사이드 모모찌전경.



3) 인문환경적 측면

후쿠오카의 대표적인 축제로 하카타기온야아가자가 있는데 국가지정무형문화재로 그 프로그램 면과 규모가 크다. 이처럼 다채로운 문화를 축제화 시켜 관광 상품화 시켰으며 지역 특산물을 개발해 유명물이 되게 했다. 다양한 축제도 지역의 특수성 살리고 더욱 더 발전 계승하도록 했으며 축제 때 실제 모습을 재현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4) 행정적 측면

국제화 정보화의 진전과 시민의식의 다양화 등 새로운 시대의 니드에 대응하고 다양한 기능이 상호연계복합하는 것으로 사람, 정보, 문화 등이 상호로 유통하는 새로운 거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시사이드 모모찌는 주택 중심으로부터 소프트리서치파크와 트인 돔, 아시아태평양 센터, 도서관등이 입지 해 미래형 복합 도시로서의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표1> 후쿠오카 도시계획변천표

년도	주 내용
쇼와52년	후쿠오카 마스터플랜 작성
쇼와57년 4월	주택 6,850채, 인구 2만6천명
쇼와61년 9월	부지매립. 인구년평균 1.1%로 증가
쇼와62년 3월	제1회 토지이용재검토
쇼와63년 4월	후쿠오카 마스터플랜 개정
쇼와63년 6월	시사이드 모모찌 토지이용검토 위원회 설립. zoning안 작성

2-2. 부산 해운대

1) 자연환경적 측면

사계절이 뚜렷하며 기후도 일본과 비슷하다. 또한 불규칙적인 배산압해의 산계가 좁고 길게 형성된 곡간평야지역으로서 토지 이용 측면에서 불리하다. 반면, 동백섬, 송림공원, 해운대 해수욕장, 장산 폭포 등 자연환경자체가 명소인 곳이 일본에 비해 많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운대 해수욕장의 해안선과 사면이 점점 유실되고 여름 피서철의 관광객 집중화에 의한 오염으로 많이 훼손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름철 이외에 계절은 공황 상태가 되는 계절 성까지 지니고 있다.

2) 인공환경적 측면

바다의 특성을 살린 요트경기장과 올림픽 공원을 조성해 스포츠 경기와 아울러 바다로의 시각 축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었다. 즉, 해운대 워터프론트 개발유형은 여가 대응, 지역 진흥을 위한 개발과 어메니티를 중시한 환경 정비 유형의 복합적인 개발 유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올림픽 공원 야외 조형물과 사계절 꽃과 나무를 심어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자연과 가까워질 기회를 도모한다. 또한 해안 테마 수족관을 건립을 추진해 체험학습과 탐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바다라는 요소를 적극 활용했다. 이처럼 인공 환경은 바다를 주요소로 이용 활용하는 측면

을 높여 환경 친 화적인 디자인을 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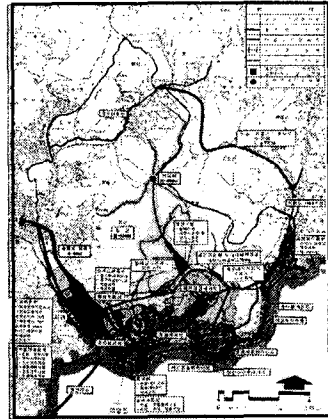
3) 인문환경적 측면

보름달 축제, 북극곰 수영대회, 바다미술제, 등 매달마다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해운대 고유의 전통적 민속문화 축제가 미약한 편이며 관광객의 볼거리와 참여도를 높일만한 이렇다할 행사가 없는 실정이다.

4). 행정적 측면

1995년 해운대구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살펴보면 계절성 극복을 위한 다양한 관광자원개발계획 제시, 주변지역의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광개발이 되도록 개발 방향 조정, 해안모래의 유실방지, 매립지를 활용한 해안 위락단지 조성, 레포츠시설 도입, 보행자 전용물동의 조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림2>해운대구 관광종합개발 계획도



III. 결론

두 도시간의 비교를 통해 봤을 때, 우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워터프론트라는 개념을 먼저 도입해서 케야노몬다 이문과 같은 자연적 절경이 부족한 점을 지붕개발식 돔이라든가 박물관, 인공해변, 정보관련산업의 거점을 형성하는 후쿠오카 소프트리서치 파크 등 고도의 기술력과 창의력으로 고부가가치와 함께 시사이드 모모찌로의 집중화를 유발하는 인공환경을 창출해냈다. 반면 우리 나라 해운대는 장산 폭포, 동백섬, 해운대 해수욕장 등 자연환경 위주의 워터프론트개발 유형이지만, 각종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다양하거나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컨벤션센터나 해양테마 수족관등, 최첨단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인공환경 설계로 21세기를 리드하는 거점도시로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환경친화적인 워터프론트 디자인이란 주어진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을 조화롭게 공존시키되, 지역 전통문화를 현대에 맞게 재계승하고 미래비전제시와 함께 행정적 측면에서의 지원과 민자유치 부분도 함께 지원되어야 그 실효성을 거둘 것이다.

참고문헌

1. "후쿠오카시 도시정비 마스터플랜", 1980-2001
2.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구관광종합개발계획", 1995.2
3. 이종찬, "관광특구 해운대의 관광산업활성화방안", 부산대학교환경대학원행정학과석사과정, 2000
4. 조남석, "부산해운대워터프론트환경설계",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환경조경학과석사학위논문, 1999